

사 설

상설 행자교육원 시급하다

조계종은 1981년 단일계단, 1991년 행자교육원을 개설함에 따라 행자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사미·사미니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많이 개선했다. 그러나 교육도량이 안정되지 못하여 행자교육은 물론 구족계 및 3급 승가고시 개설 때마다 장소 선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1997년부터 행자교육원의 상설화가 논의되어 2000년에는 상설행자교육원 설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상설도량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할 진척된 상황은 아무것도 없다.

승가교육이 날로 향상일로에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행자교육, 구족계산립, 3급 승가고시 등 정규교육과 교육과정으로 현실화됐고, 비정규 특수교육까지 수용하자면 종단의 종합교육시설을 갖춘 중앙연수원 건립은 시급한 문제다. 조계종

의 도제를 양성하고 종단의 백년, 천년의 미래를 이어나갈 승가교육은 문종이나 개개 본사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행자교육원은 상설도량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집중교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승가교육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교수사나 습의사 등 교육자 양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아무리 큰 불사를 한다해도 그 도량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자질이 부족하다면 불교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종단의 책임자나 본산 주지 등 책임 있는 구성원의 결연한 의지 없이는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종단 관계자의 결연한 의지로 적당할 분사나 말사 등에서 교통과 교육 환경을 감안하여 행자교육원을 상설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찰환경 보존돼야

조계종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사찰의 수행 환경 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범불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만지시탄의 느낌이 없지 않지만 늦게나마 조계종이 국민적 여망에 부응키로 한 것은 장한 일일 아닐 수 없다.

전국 어둠 가나 교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지 이미 오래다. 도시의 모습을 갖추고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이같은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 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부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안목에서 상호연계성을 갖추고 확정된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즉흥적인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다분한 개발 계획을 시행자들이 마구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시행키로 한 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약한 비구니 스님들을 폭력까지 동원,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번 결의 대회 때 보여준 것처럼 그 저항의 폭은 불교계를 넘어서 타종교까지 파세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불교계의 요구는 고계만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단순한 항의가 아니며 흔히 말하는 불교계의 남비현상도 결코 아니다. 우리의 전통문화 가운데 가장 오래돼 외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정신문화의 뿌리를 보호하면서 이 땅을 청정국토로 만들기 위한 연원을 성취할 수행처를 보존하지는 극히 소박한 외침인 것이다. 이 점을 정부와 관련 당사자들은 깊이 헤아려 신중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조계종-선학원 한뿌리 재확인

정대·정일스님, 관계정상화 6개항 합의문 서명

조계종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재 확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과 (재)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은 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6개항의 관계 정상화 내용을 담은 조계종-

선학원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앞으로 조계종 발전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번 조계종과 선학원의 합의안 서명은 1978년 선학원 정관개정에서 '조계종'을 삭제한 이후 정체성은 쟁까지 전개되었던 문제가 25년

만에 해결돼 의미가 크다. <본지 333호 1, 3면, 357호 2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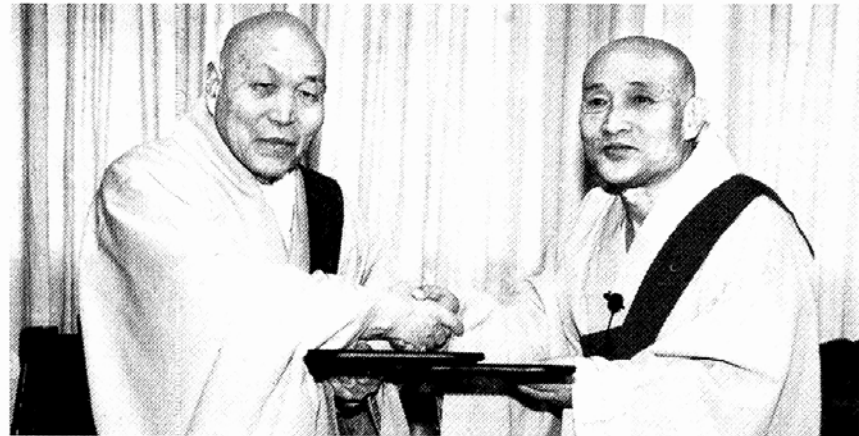
이날 서명식에서 정대스님은 "조계종과 선학원 관계정상화를 이루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해결돼 기쁘다"며 "규약 내

용을 보니 선학원에서 많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총무부장 원택스님 등 종단 부장스님들에게 "실무협약에서 종무직 취임제한, 선학원 수계행자 문제 등을 처리할 때 조계종에서 대폭 양보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도 "조계종과 선학원이 하나가 된 것은 값진 일이다"며 "불법에 기초하여 도제양성에 중점을 두고 종단이 나아가간다면 앞으로 갈라질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명식후 조계종 대책위원장 원택스님(중회의원)과 선학원 대책위원장 동진스님(선학원 이사)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합의는 조계종단 지도부의 강한 해결의지와 선학원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실이다"며 "앞으로 조계종과 선학원의 이해와 결의는 실무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후속조치로 조계종은 분한신교 등 승적관리, 종무직 취임제한, 행자교육원 등 도제교육, 선원 강원 입방 등의 제재를 모두 처리할 계획이며, 선학원은 교육본담금 납부, 정체성 확립 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오른쪽)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이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서명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운산 총무원장 4월12일 취임식

태고종, 중도화합위한 대각성법회도 함께 개최

태고종은 4월 12일 오전 11시 제22대 운산 총무원장 스님 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태고종도들의 화합과 종단 안정을 위한 '태고종 한마음 대각성 정진대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서울 신촌 불원사에서 봉행되는 총무원장 취임식과 한마음정진대법회는 승정 등 원로 종진 스님들과 각 시도교구 총무원장, 신행단체장, 내외귀빈 등 50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태고종은 2월 27일 정기 총무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하고 향후 △조계종과의 사찰분규를 종식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 중흥을 건조성 △종단 재정안정을 위한 생

산불교 지향 △태고종도 대각성 등 전개 △종립 동방대의 대학원 대학 설립 추진 △'선교육 후속도' 제도 정착 △사회복지법인 설립 등을 중점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숙 기자

조계종 22기 행자교육원 3월20일 직지사서 개원

조계종은 제22기 행자교육원을 20일부터 4월11일까지 23일간 제8교구 본사 직지사서에서 개원한다. 이번 행자교육원에는 모두 272명의 행자가 일교신청을 했다. 한명우 기자

사범단속반 독립부서로

문화재청, 시행 규칙 공포, 인원도 크게 늘려

문화재청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유형문화재와 동산계 소속이던 사범단속반은 신설되는 매장문화재와 사범계로 독립한다.

문화재청은 9일 사범단속반 부서 독립과 2개 과 신설을 골자로 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령'에 관한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신설되는 2개 과는 폭증하는 매장문화재 업무를 담당할 매장문화재과와 최근 들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분야를 전담할 천연기념물과다. 이에 따라 유형문화재과는 매장문화재과와 건조물과로, 기념물과는 천연기념물과와 기념물과로 분리된다.

인원도 13명이 늘어나 사범단속

반 3명, 매장문화재과 4명, 천연기념물과에서 6명이 총원된다. 권진진 기자

동국학원 이사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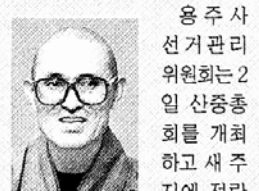
현해·현각스님 추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5일 제 39차 회의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동국학원 이사 도원스님 후임에 현해 스님(월정사 주지)과 현각 스님(중회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 무관스님 후임에는 지명스님(법주사 주지)과 세영스님(신복사 주지)을, 항적스님 후임에 일연스님(봉선사 주지)과 화법스님(중회의원)을 복수 추천했다.

한편 승가학원 이사장 후보에는 정대스님과 정락스님을 추천키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정락스님 선출

2일 용주사 산중총회서



용주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산중총회를 개최하고 새 주지에 정락스님(사진)을 선출했다. 정락스님은 참학스님 96표중 87표를 획득하고 운산스님은 5표를 얻었다.

정락스님은 1959년 김계홍복사에서 전강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으며, 1963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5·7대 중앙총회의원과 총무원 규정부장, 83년 총무원 기획실장, 94년 포교원장, 96년 제2교구 용주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현대' 만평** 김영민

상설도량 하나 없다니...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원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제기는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언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지장 만일 기도 도량 도리천궁 육지장사

윤지원 스님과 함께하는 **매월 삼천배 철야기도안내**

지장성지 도리천궁 육지장사에 나투신 지장보살님의 신통영험을 체험할 수 있는 일숙각성취(一宿覺成就)기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대상 ▷ 일반인, 신행단체, 개인, 부부동반

●참가목적

- ▷ 사업 소원 성취, 건강 성취, 학업 성취
- ▷ 인내력, 결단력, 대담성, 강인성, 추진력, 의지력 성취
- ▷ 비만, 다이어트실패, 금연실패, 자기조절 관리실패 성취
- ▷ 명애와 출세를 위한 자기관리능력 체험

●삼천배기도

- ▷ 일 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3월 16일) 밤 9시 - 다음날 정오까지
- ▷ 장 소: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294-3 육지장사
- ▷ 진행순서: (1) 지장관법: 호흡법 수행 (2) 삼천배 수행 (묵언) (3) 삼천배 성취 회향법회 (삼천배 성취자를 위한 호신만트라 삼천배대 증정)
- ▷ 준 비 물: 운동복(반팔티 2장 하의 짙은 짙은 면 소재)

**지장경 독송 회원 모집**

한국의 유일한 지장성지 육지장사는 도리천궁 지장보살님의 회상을 지상에 건설하고자 6만 지장보살성상을 조성하여 모셔가는 장엄되는 성지입니다

'지장보살의 명호를 단 한번만 듣고 합장 예경하거나 간절히 따르면 이 사람은 삼십겁 동안 지은 죄가 소멸되고 백번이나 33천에 태어난다'

-지장보살본원경-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잠 못 들어 고뇌하십니까? 지장경 독경기도에 참석하십시오 성취의 문이 열립니다

**회원가입방법**

- ◆ 가입방법 전화, 우편, 지로, 통신
- ◆ 문의전화 02)352-6406
- ◆ 회관대상 모든불자 일반인
- ◆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역촌 1동 17-12
- ◆ 기도처전화 031)871-0101

**삼보협회**

- ◆ 일반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 청년대학생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 ◆ 청소년(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 어린이(초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화엄신중기도 매일 음 1일 ~ 3일
- ◆ 지장기도 매일 음 18일
- ◆ 문이전화 02)352-6406

02)352-6406~7 도리천궁 육지장사 031)871-0101  
 http://www.sambosa.or.kr e-mail: sambosa@hanmir.com